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 나선다 아이 키우기 좋은 순창 만든다

임실군, 고온 스트레스 예방 위해 농가 2개소 선정 저감기술 시범사업 추진

임실군이 고온기 축사 내 가축의 열 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관내 젖소 농가 2개소를 선정하고, 스마트 축사환경 조절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기술을 도입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젖소의 입계온도는 27°C로 고온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며,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유량 감소 등 생산성 저하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축사 온도만을 기준으로 낙농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송풍팬, 음수기, 안개분무기 등 열 스트레스 저감 시설들을 각각 작동시키기 때문에 고온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고, 효과도 미미하다.

해당 시범사업은 축사 내부 온도와 습도를 함께 측정해 온습도지수(THI: Temperature Humidity Index)를 산정한다. 단계별로 필요한 시설들을 작동시킴으로써 정밀한 축사환경 관리가 가능하여 젖소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여 산유량 증가 및 체세포수 감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군이 고온기 축사 내 가축의 열 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관내 젖소 농가 2개소를 선정하고, 스마트 축사환경 조절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기술을 도입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갔다.(안개 분무기)

또한 하나의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해 낙농가의 편의성을 향상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상기온으로 여름철 기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고온기 가축 스트레스는 번식 장애, 질병 발생 등의 피

해가 나타나 심각하면 폐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에 여름철 가축 관리에 특히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축산농가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 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많은 축산농가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축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 추진

순창군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펼치며 '아이 키우기 좋은 고장'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해피니스센터에서는 임신부 교육, 유아발레, 워데이클래스, 가임기 여성 필라테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또한 놀이방과 산모실터 운영으로 육아에 지친 부모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인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 아이 300만 원부터 넷째 이상 1,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7월 현재 117명에게 2억 830만 원을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군은 임신부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군은 현재 100명의 임신부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86명이 분만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9명보다 늘어난 수치로, 출산율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된다.

그리고 임신 주기별로 엽산제와 철분제를 제공함은 물론 임신 축하 선물

로 마더박스, 범퍼 침대 또는 유아 식탁을, 출산 축하 선물로는 역류방지 쿠션과 아기띠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순창군은 119 안심구급서비스를 운영해 임신부와 영유아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작은영화관에서 출산장려정책 광고 영상을 상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우리 군의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기존 정책을 개선해 나가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순창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력 행위 근절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시민들에게 긴급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 및 폭력 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활용,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등을 활용해 구급대원 폭행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밝혔다.

최승범 구조구급팀장은 "구급대원들은 긴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이나 폭행은 현장 활동을 방해하고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 HACCP 인증 취득

지역 농특산물 활용 가공제품 생산 안전성 제고

순창군은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으로부터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취득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로써 농업인을 비롯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순창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품을 안전하게 믿고 소비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취득한 HACCP 인증은 식품제조와 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품질·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이번 인증은 과채 주스, 음료, 잼, 캔



디류 등 4개 유형의 제품에 대해 이뤄졌으며, 인증 기간은 2024년 7월 23일부터 2027년 7월 22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입고부터 제조, 가공,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해 위해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의 농산물가공 창업 지원을 위해 가공창업아카데미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고 창업한 농업인들에게는 포장재 지원 사업을 통해 소득 증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HACCP 인증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과채주스, 음료, 잼, 캔디류 등 가공제품의 생산 안정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를 계기로 관내 농가들이 가공산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지난 1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남원시노인복지관, 남원사회복지관, 지리산노인복지센터 등의 대표자와 간담의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대표자들과 간담회

남원시는 지난 1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하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남원시노인복지관, 남원사회복지관, 지리산노인복지센터 등의 대표자와 간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돌봄서비스 사업의 주요 추진사항, 수행기관 주요 현안, 애로사항 등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가 공백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다졌다.

돌봄서비스는 만65세이상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

건강 악화 방지 등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폭염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위해 돌봄서비스 전담인력인 독거노인 생활지원사(215명)를 통해 취약노인(3,05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전화 등 수시로 어르신 안전 및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 대응 행동요령과 건강수칙 등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임점숙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역사회 내 돌봄 안전망 체계를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만성질환자 대상 하반기 고고당 센터 운영

임실군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고고당 센터를 8월 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보건의원과 각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고고당(고혈압·고지혈증·당뇨) 센터는 방문간호사 및 보건지소 통합보건요원들이 만성질환자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 23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검사와 건강상담을 총 2차례 실시하여 대상자 본인의 전·후 건강 상태를 비교 확인하고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건강관리사업이다. 대상은 고혈압, 당뇨 유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중 비(비)조절자를 우선 선정하며, 검사 항목으로는 혈압과 총콜레스테롤, 공복시 혈당과 당화혈색소이다.

또한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건강상담도 진행하며, 비조절자는 수치 개선을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방치된 빈집문제 해결 나서

순창군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방치된 빈집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한국부동산원과 추정 빈집건축물 대상으로 빈집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달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군은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분석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산출된 추정물량 990호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조사는 빈집 여부를 확인한 후 △계

량기 철거 △출입구 안전 폐쇄 △소유자와 이웃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빈집으로 판정하고, 위해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와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2025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빈집 관련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